

# 국힘 “尹 개헌 의지 환영”... 민주 “헌법 파괴자 즉시 파면”

## 현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반응... 여야 “승복 메시지 없었다” 비판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두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전일 최후변론에서 밝힌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을 부각하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야당은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현재의 파면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론한 개헌에 대해 “헌법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과업으로 개헌을 통해 정치 시스템을 고쳐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으로서 그런 내용을 말한 건 옳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성일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유 여하를 떠나 국가 대개조의 방향을 제시하신 것은 큰 진전”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해 개헌을 통

한 국가 대개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주류로 구분되는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부분 야당 텃밭 또는 본인 변명, 지지자 결집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서 헌법 개정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본인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라며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헌재 결과에 따라 승복 (또는) 분열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국민 통합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계엄 때) 저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안 말리는데도 국회 답을 넣었다’는 해괴한 소리를 하던데 사람이 있으면 못 넘으니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게 할 수 있는 소리인가. 12월 3일 내란의 밤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라며 “역사적 장면들을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왜곡한다고 본

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불능”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게 명백한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후 진술로 탄핵 사유를 자백한 셈”이라며 “대국민 호소가 계엄 사유였다는 궤변 자체가 계엄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제든 더한 일도 벌일 수 있는 비정상적 정권체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무엇보다 승복의 메시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1시간짜리 대국민 헛소리, 국민 우롱이었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헌법 파괴자 윤석열은 파면해야 한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야, 연금개혁특위 설치 합의

### 내일 국정협의회 열어 논의... 다음달 5일부터 3월 임시국회

여야는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8일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배석한 국민의힘 박형수-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결이 대립하고 있어서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서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아직 그 부분 (모수개혁)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를 먼저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3월 임시국회도 내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조인철, 국회서 ‘AI 혁신과 안전’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이 2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AI 혁신과 안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조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회장 배경훈)와 공동 개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산업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산업 육성과 윤리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 의원은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AI 기본법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I는 규제가 아니라 혁신의 촉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진호 과장, 랭코드 김민준 대표이사, 로폼(LawForm) 박성재 AI센터장, 네이버 박우철 변호사, KT AI Lab 배순민 소장,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신상열 국장,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오상진 단장, SK텔레콤 이영탁 성장지원실장, 트웰브랩스 정진우 이사가 참석해 AI 기본법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박지원 “쌀 재배면적 조정” 설명·대책 부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의 ‘벼 재배 면적 조정’에 대한 설명도 대책도 부실하다”며 “벼 재배 농민들에게 확실한 설명과 대체 작물 재배에 따른 확실한 소득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벼 재배 면적 조정제에 대해 현장 농민들이 굉장한 혼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확실한 설명은 물론 전략 및 대체 작물에 대한 소득 보전 등 확실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현재 지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세계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도군 청산면 구들장 논배미에 대해 정부가 2년 전부터



2억원씩 예산을 지원하다가 중단했다”며 실태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최용천 국가유산청장에게도 이를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최 청장에게 “완도 청산도에 구들장 논배미가 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물이 부족해 돌로 구들장을 놓듯이 좁은 땅에 바위를 놓아 농사를 지어 온 것으로 가보면 이것이 과학”이라며 “정부의 지원이 끊긴 만큼 국가문화유산에서 이를 문화유산으로 지정·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직장인 식대 현실화 합시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주최로 열린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협약식’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정은 월급방위대 위원장,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담양군수 재선거 ‘민주 vs 혁신당’ 재격돌

### 민주 예비후보 5명 거론... 혁신당,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 출마 선언

담양군수 재선거가 영광·곡성에 이어 민주당-조국혁신당 간 경쟁 구도로 치러질 지 주목된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최근 담양군수 재선거 경선을 결선투표제로 실시키로 했다. 통상적으로 결선

투표는 예비 후보자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한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상대로 한번 더 투표해서 후보자를 뽑는 방식으로 치른다.

현재 민주당 담양군수 재선거 경선에 나설 후보로는 김용주 전 담양군 경제과장, 김정오 전 담양

군의원, 김종진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 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5명이 거론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이 26일 출마를 선언, 본선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후보 간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0월 치러진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 이어 다시 민주당과 혁신당의 경쟁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리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예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홍성벤처기업부점점성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흥농특부 강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청정!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